

# 친문·친추...민주 최재성 혁신위 출범

### 추미에 “외연확장 적임자”

### 100만 당원·조직 개편 추진

### 공천권 장악엔 갈등 가능성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8일 혁신위원회를 꾸리고 위원장에 3선 출신 최재성 전 의원을 내정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져 향후 혁신위의 역할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민주당 최고위원들은 당시 최고위원회의 뒤 추미에 당 대표실에 모여 이 같은 사항을 결정했다.

앞서 추 대표의 최고위가 끝난 직후 최고위원들에게 “상의 드릴 일이 있으니 당 대표 실로 모여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혁신위를 통한 당헌·당규 개정 등에 대한 사항은 향후 더 논의를 해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대표는 혁신위의 필요성에 대해 기자들에게 “당 대표 취임 1주년이 되는데 최근에 느낀 게 아니다”라며 “당의 그릇을 키워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하자는 것으로 계속 얘기를 해오던 것”이라고 말했다.

혁신위원장은 3선의 최재성 전 의원이 내정됐다. 최 전 의원은 김민석 민주연구원장과 함께 혁신위 기획과 구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최 전 의원은 3선 국회의원에 당 사무총장을 역임할 정도로 민주당 사정에 밝다. 또 문재인 당대표 시절 호위무사로 활약한 ‘친문’ 출신이고, 최근에는 추 대표와 호흡을 맞춰왔다. ‘친(親)문재인’이자 ‘친(親)추미에’ 카드를 쥔 셈이다.

추 대표는 최 전 의원을 위원장으로 내정한 데 대해 “3선 경험이 있는 중진의원으로서 (문재인 대표 시절) 안철수 의원 탈



우원식 “北 도발 힘 모아 대처합시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의 미사일도발과 사드배치에 관해 “청와대 대응에 이견이나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는 발언보다는 초당적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한다”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 박지원 의원 등 중진급 탈당으로 위기일 때 권리당원 가입을 호소해서 많이 들어오게 했다”며 “외연 확대에 대해서는 나름의 철학을 가진 분이고 적임자라 할 수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혁신위의 목표는 ‘100년 정당’을 건설하기 위한 당원 중심의 정당 시스템 개편이다. ‘100만 당원’ 확보와 함께 당 조직 개편 및 시스템 현대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통상 정당에서 혁신위는 선거에서 패배하거나 당이 어려움을 겪을 때 구성된다. 그러나 민주당의 경우 총선과 대선을 연이어 승리한 데다 정당지지도도 고공행진을 하는 상황에서 꾸려진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이에 당 안팎에서는 혁신위가 결국 지방선거 공천을 위한 조직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의 한 당직자는 30일 “지방선거가 다가오는 시점에서 혁신위를 꾸린다는 것이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결국은 공천을 목표로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물론 추 대표는 “지방선거만 내다 보고 하는 게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는 당직자는 없는 듯하다.

당 관계자들은 혁신위가 공천을 변경을 통해 공천을 좌지우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 경우 당 계파 갈등이 불거질 것이 확

실하다. 특히 당내 ‘비문(비문재인)’ 성향의 의원들이 크게 반발할 수 있다.

당의 한 중진 의원은 “공직선거는 선거인단 구성이 핵심인데, 당원과 일반국민의 반영 비율은 예민한 문제”라며 “거기에 손을 대면 자칫하면 당에 정말 큰 분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혁신위를 출범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 의견도 나온다. 정기국회에서 예산과 입법으로 대통령의 국정과제 성공을 뒷받침해야 하는데, 그런 시기에 혁신안에 대한 갑론을박을 벌일 경우 개혁과제가 국민적 관심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與, 靑 비서관 지역위 ‘사고 지역’ 지정

### 지도부 “원칙적 결정”...후임 놓고 설왕설래

민주당이 청와대 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긴 전직 국회의원 등이 맡아오던 지역구를 ‘사고 지역위원회’로 결정하면서 사후 처리 방향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민주당은 최고위원회를 통해 최근까지 경기 시흥갑(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 전북 익산을(한병도 정무비서관), 서울 강서을(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충남 공주·부여·청양(박수현 대변인), 충남 보령·서천(나소열 자치분권비서관), 서울 관악을(정태호 정책기획비서관) 등의 지역위원회를 사고지역위원회로 각각 결정했다고 복수의 당 관계자가 30일 전했다.

최고위원회는 또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은수미 여성가족비서관), 나주시·화순군(신정훈 농업농민비서관), 포항시 남구·울릉군(허대만 행정안전부 정책보좌관) 등 5곳 안팎의 지역위원회도 해당 지역위원장의 당직이 정리되는 대로 사고지역위로 의결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추 대표는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를 조만간 구성해 사고 지역위 문제를 처리할 예정이다. 사무총장이 당

연직 위원장인 조강특위는 사고지역위에 새 위원장을 공모할지, 직무대행으로 갈지, 일단 판단을 유보할지 등을 결정한다.

당 지도부는 이번 결정이 지역위원장을 하던 전직 의원 등이 청와대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기 위해 당직을 정리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당헌·당규에 따라 처리했다는 것이다.

지역위원장의 경우 차기 총선 공천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 따라서 후임 선정 문제를 놓고는 당내에서 벌써 설왕설래가 한창이다.

당 일각에서는 그동안의 관례를 들어 기존 지역위원장의 입장을 존중, 직무대행을 임명하는 게 맞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현 지도부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고 지역위’에 대한 전면적인 재정비에 나서면서 당내 장악력을 강화하려는 게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물론 추 대표가 직무 대행 체제로 가지 않고 새로운 사람을 임명할 경우 당청 갈등을 촉발시킬 수도 있다. 청와대에 근무하는 당 출신 인사로서는 좌불안석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여야 잠시 휴전...‘망중한’ 국회

### 일제히 여름휴가 떠나

새 정부가 출범한 후 인사와 추경에 이어 증세와 탈원전까지 쟁점 현안을 두고 한 치 양보 없이 치고받던 여야 의원들이 이번 주 잠시 휴전하고 국회를 떠나 망중한을 즐긴다.

조기 대선부터 하루도 쉬지 못했다는 각 당 지도부가 일제히 숨 고르기에 들어가고, 일선 의원들도 공무상 출장, 가족 여행 등을 목적으로 상당수 해외로 나간다. 이낙연 국무총리, 지역 국회의원 상당수는 다음 달 초 목포와 신안 등지에서 열리는 ‘2017김대중평화캠프’로 향한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에 대표는 31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우원식 원내대표는 다음 달 3일부터 6일까지 번갈아 휴가에 들어간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고향인 경남에 내려가 독서를 하며 정국 구상을 하고, 정우택 원내대표는 가족과 함께 교회 수련회에 참석한다.

전당대회(8·27)를 앞둔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휴가를 따로 쓰지 않고 전당대회 준비에 힘을 쏟기로 했다. 바른정당 이해훈 대표도 휴가 대신 전국 순회 캠페인에 나서며 당을 알린다.

장기간 해외에 머무는 의원들도 상당수다.

9월 정기 국회 전 정치 하한기를 이용해 여행도 하고 ‘의원 외교’도 벌인다는 취지다.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동료 의원들과 함께 ‘북방경제원정단’을 꾸려 지난 27일부터 아흐레간의 일정으로 러시아 극동 지역을 방문했다. 아시아 경제협력, 가스관과 대륙철도 연결, 북극 항로 개척 등에 관해 현지 관계자들과 논의할 계획이다.

정세균 국회의장도 조만간 중동으로 떠난다. 정 의장은 다음 달 2일부터 13일까지 이란, 파키스탄, 미얀마 등을 순방한다. 정 의장은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의 취임식과 공식 만찬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란과 파키스탄 국회의장 등도 만난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 6명이 동행한다.

광주·전남 국회의원 상당수는 다음 달 5일부터 1박2일간 일정으로 목포와 신안에서 진행되는 ‘김대중평화캠프’에 참석한다. ‘2017김대중평화캠프조직위원회’(명예위원장 김해동)가 주최·주관하는 김대중평화캠프는 김 전 대통령의 정신과 철학을 계승하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 국민의당 전대 ‘올드보이’ 대결 구도 굳어져

### ‘뉴페이스’ 도전 난망...천정배·정동영·문병호·김한길 경쟁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국민의당의 8·27 전당대회가 중진들의 당권 경쟁 구도로 굳어지는 모습이다.

당 안팎에서는 혁신 이미지를 담고 전대 흥행을 위해선 참신한 인물이 당권 도전에 나서야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지만, ‘뉴페이스’ 등장할 조짐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30일 현재 당권 후보로는 천정배 의원과 정동영 의원, 문병호 전 최고위원,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꼽힌다.

이 가운데 정동영 의원이 지난 11일 가장 먼저 출사표를 던졌다. 천 의원은 다음

달 1일 대전 한밭체육관에서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

김 전 대표의 경우 출마 여부를 두고 고심하면서 당 안팎의 의견 수렴을 하고 있다. 문 전 최고위원은 당내 분위기를 좀 더 지켜본 뒤 수일 내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조배숙 의원, 김성식 의원, 최경환 의원 의원 등도 자전타전으로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당 안팎에서는 유력 주자들이 당의 중진으로만 채워지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태구 사무총장이 지난 23일 “대선 패배 책임을 진 지도부의 후임을 선출하는 단순한 임시 전대가 되는 순간 당의 미래는 어둡다”며 “단순히 중진들의 놀이터가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가 출마를 검토하며 당내 의견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대중에게 새로운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정치 신인들이 도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당의 한 관계자는 “좀 부족하더라도 ‘뉴페이스’가 나와줬으면 하는데 그럴 조짐도 없는 것 같다”며 “조직과 세 대결을 무시

할 수 없는 정당 선거 특성이 반영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당의 창업주이지만 대선 패배와 ‘제보 조작’ 사건의 책임을 지고 활동을 자제하고 있는 안철수 전 대표의 행보도 전대의 주요 변수다. 안 전 대표에게는 정계은퇴론과 전당대회 등판론이라는 극단의 목소리가 당 안팎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한편 지난 27일 전당 중앙위원회가 당대표-최고위원회 선거를 분리하고, 선출직 최고위원을 2명(전체 11→7명)으로 축소할 것도 출마를 검토하던 이들의 거취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최고위원 수가 줄어든데다 권한과 책임 대부분이 당 대표에게 쏠리는 구조여서다.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회는 당대표-최고위원 후보자 등록을 다음 달 10~11일 이틀간 진행한다. /김형호기자 khh@

**SUNLAKE VILL 전원마을 조성단지**

세울터건축사사무소(주)

## 나주, 다도면 임야

■ 나주시 다도면 판촌리 산191-17

한전(KPS) 연수원 인근

■ 임야 1423평, 보전관리지역

■ 혁신도시 15분, 남평에서 10분

■ 모든업종 개발가능

■ 호수를 품은 최고의 전망

■ 매매 - 평당 70만원

■ 주인직매

H. 010-3605-5000